

심층분석보고서

한국투자증권-국내대-경영관리

2026.04.14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국내대-경영관리

심층분석보고서: 한국투자증권 국내대-경영관리 직무

1장. 한국 증권업 산업 분석: 역대급 호황 속 구조적 전환기

1-1. 산업 정의와 규제 프레임워크

한국 증권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거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일임업,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의 핵심 부문이다. 이 산업은 4중 감독·규제 체계 아래 운영된다. 금융위원회가 정책 수립 및 인허가를, 금융감독원이 감독·검사를 담당하며, 한국거래소(KRX)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운영을 책임지고, 금융투자협회(KOFIA)가 자율규제를 수행한다. 이러한 다층적 규제 구조는 증권사의 경영관리 부서가 일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핵심 외부 환경이다. 특히 경영관리 직무는 금감원 영업보고서 제출,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관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각종 규제보고서 작성 등에서 이 규제 프레임워크와 직접적으로 접점을 형성한다.

2025년 기준 증권회사 61개사가 영업 중이며, 이 가운데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10개사가 시장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종투사 제도는 2013년 도입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증권사에 기업금융, 프라임브로커리지, 헤지펀드 투자 등 확대된 사업 범위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이면 발행어음 사업(자기 명의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이, 8조 원 이상이면 IMA(종합투자계좌, 고객 자금을 기업금융 자산 70% 이상에 운용하는 신종 사업)가 가능하다. 이 제도적 장벽이 대형사 중심의 과점 구조를 구조적으로 고착시키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이 양 사업 모두에서 1호 인가를 확보한 것이 현재의 압도적 수익 격차의 근본 원인이다.

1-2. 시장 규모와 성장 추이: 역대 최고 실적의 구조적 배경

2025년 증권업계의 숫자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는 표현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증권사 전체 당기순이익은 9조 6,455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6조 9,900억 원) 대비 38.9% 증가했고, 이는 2021년 동학개미 시대의 기록(약 8.9조 원)을 넘어선 사상 최고치다. 수수료수익은 16조 6,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3% 증가했으며, 증권사 전체 자산총액은 943.9조 원(전년 755조 원 대비 25.0% 증가), 자기자본 합계는 102.4조 원(전년 91.7조 원 대비 11.7% 증가)에 달했다. 주식 활동계좌 수는 9,829만 개로, 한국 인구(약 5,200만 명)의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초유의 호실적 배경에는 코스피 지수의 연간 75.6% 상승과 일평균 거래대금 16.9조 원(전년 대비 57.1% 증가)이라는 폭발적 증시 호황이 자리하고 있다.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른바 '서학개미' 현상)도 핵심적 동인으로, 위탁매매 수수료 내 해외주식 비중이 2021년 13%에서 2025년 34%로 급증했고, 해외주식 수수료 시장 규모만 2.4조 원에 달했다. 미국 나스닥과 S&P 500의 사상 최고치 경신이 지속되면서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직접 투자가 구조적으로 정착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순이익 1조 원 클럽'의 확대다. 2024년에는 한국투자증권 1곳만이 이 문턱을 넘었으나, 2025년에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의 5곳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증권업이 특정 호황기의 일시적 수혜를 넘어, 구조적으로 수익 기반을 확대해왔음을 보여준다. 경영관리 직무 지원자가 이 구조적 변화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경영관리가 바로 이 '수익 다변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의 실무적 핵심 부서이기 때문이다.

1-3.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5대 트렌드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국내대-경영관리

첫째, 디지털 전환과 대체거래소 출범. 2025년 3월 한국 최초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개장했다. 이로써 주식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의 12시간 체제로 확대되었고, 개장 1년 만에 연간 거래대금 2,338조 원을 기록하며 기존 거래소의 대안으로 빠르게 자리잡았다. 이 변화는 증권사의 IT 시스템, 리스크 관리 체계, 인력 배치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요구한다. 동시에 토큰증권(STO) 발행·유통도 본격화되어,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최초로 1,0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다. STO는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전통적으로 유동성이 낮았던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증권화하는 것으로, 증권업의 사업 영역 자체를 확장하는 혁신이다.

경영관리 직무 관점에서 이 트렌드가 중요한 이유는, 대체거래소의 등장이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내부 결산·정산 프로세스 변경, STO의 등장이 새로운 상품의 회계처리·규제보고 기준 마련이라는 실무적 과제를 직접 수반하기 때문이다. 신입 경영관리 담당자가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추고 있다면 면접에서 차별화된 인상을 줄 수 있다.

둘째, 규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 공매도가 2025년 3월 31일 전면 재개되었고, 이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간 지속된 제한의 해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고, 이는 WM 부문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추진으로 상장사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증시 전반의 구조적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한편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0%로 환원되는데, 이는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거래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발행어음·IMA 인가 확대도 규제 변화의 핵심이다. 2025년 말 기준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신규 인가를 취득하면서, 기존 5개사에서 7개사로 경쟁이 확대되었다. 이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과점 구조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변수다. 경영관리 직무는 이러한 규제 변화가 회사의 수익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셋째, 해외주식 투자의 구조적 정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주식 수수료 시장은 2.4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다. 미국 주식 중심의 해외 투자가 한국 개인 투자자의 일상적 투자 행위로 자리잡았으며,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중개 서비스 경쟁이 극도로 치열해졌다. 카카오뱅크 앱을 통한 한국투자증권의 '뱅크스' 서비스, 미래에셋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직접 접근, 키움증권의 낮은 수수료 전략 등이 차별화의 축이다. 경영관리 직무에서는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전 손익, 시간차 결제(Time Zone 차이로 인한 T+3 결제), 해외 세금(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관련 고객 서비스 비용 등이 수익성 분석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넷째, IB·WM 부문의 성장과 수익 다변화. 한국 증권업은 오랫동안 '천수답식 브로커리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가가 오르면 실적이 좋고, 빠지면 실적이 나빠지는, 시장 상황에 완전히 종속된 사업 구조였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발행어음, IMA, 기업신용공여, 인수금융 등 새로운 수익원이 빠르게 확대되며 이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퇴직연금 시장이 100조 원 시대에 진입하면서 WM(자산관리) 부문의 경쟁도 본격화되었다. 삼성증권의 초고액자산가 서비스, NH투자증권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미래에셋증권의 연금 강자 포지셔닝 등 각 사의 WM 전략이 분화하고 있다.

이 트렌드가 경영관리 직무에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과거에는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이라는 단일 수익원의 예산·실적 관리가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발행어음 운용마진, IB 수수료, WM 자문 수수료, 퇴직연금 수탁 수수료 등 다양한 수익원의 복합적 관리가 요구된다.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배분, 성과평가 체계 전반이 복잡해졌으며, 이는 경영관리 담당자의 역할을 더욱 전략적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국내대-경영관리

다섯째,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심화. 2021년 대비 2025년 순영업수익 지수(2021년=100 기준)가 대형사는 111인 반면, 중소형사는 76으로 격차가 뚜렷하게 확대되었다. 발행어음·IMA 등 자본 집약적 신사업은 대형사만 영위할 수 있고,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쟁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이 구조적 양극화를 인식하고 중소형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격차가 좁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양극화 구도의 최대 수혜자로서, 자기자본 규모가 곧 진입장벽이자 경쟁력인 현재의 산업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1-4. 가치사슬(Value Chain)과 핵심 수익 지점

증권업의 가치사슬은 크게 네 개의 주요 사업부문과 두 개의 신규 수익원으로 구성된다.

위탁매매(Brokerage) 부문은 2024년 기준 업계 전체 순영업수익의 약 44.3%를 차지하는 최대 수익원이다. 고객의 국내·해외 주식 매매 주문을 거래소에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전통적 사업으로, 해외주식 거래 확대와 개인 투자자 저변 확대가 견인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수수료 무료 경쟁이 심화되면서 건당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양적 성장(거래량 증가)이 질적 성장(건당 수익)을 상쇄하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자기매매(Trading/운용) 부문은 전체의 약 33.1%를 차지하며, 증권사가 자기 자본으로 채권·주식·파생상품 등을 매매하여 운용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다. 여기에 발행어음 운용(조달 금리와 운용 수익률의 차이)이 포함되면서,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는 대형사에서 이 부문의 비중이 특히 높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이 부문이 순영업수익의 41.7%를 차지해 업계 평균보다 높는데, 이는 발행어음 운용이익의 기여가 크기 때문이다.

투자은행(IB) 부문은 약 17.0%의 비중을 차지하며, IPO(기업공개) 주관, M&A 자문, 인수금융, 부동산PF, 회사채 발행 주선 등이 핵심 업무다. 2024~2025년에는 부동산PF 시장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LG CNS·대한조선 등 대형 IPO의 재개와 함께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자산관리(WM) 부문은 약 5.7%로 비중은 작지만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펀드판매, 랩어카운트, 퇴직연금, ELS/DLS 등 구조화 상품 판매가 핵심이며, 고객 자산 잔고(AUM) 기반의 안정적 수수료 수입이라는 특성상 시장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

신규 수익원으로는 발행어음(자기자본의 200% 한도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기업금융 등에 운용하여 마진을 창출), IMA(종합투자계좌, 고객 자금을 기업금융 자산 70% 이상에 투자·운용하는 신종 사업 모델), 기업신용공여(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 STO(토큰증권) 인프라 구축 등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발행어음과 IMA는 자기자본 규모에 의해 진입이 제한되므로, 대형사만의 독점적 수익원이라는 점에서 산업 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대형사의 수익 기반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이중적 효과를 낳고 있다.

1-5. 주요 플레이어와 경쟁 구도

국내 증권업은 '빅5'로 불리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 시장을 주도하는 과점 구조다. 이 5개사의 2025년 합산 순이익은 약 5조 5,000억 원으로 업계 전체(9.65조 원)의 57%에 달한다. 여기에 키움증권(온라인 브로커리지 1위, 2025년 순이익 1.3조 원)을 포함하면 '빅6' 체제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쟁 구도에서 주목할 점은 각 사의 차별화 전략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IMA를 앞세운 '자본 활용형 수익 모델',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퇴직연금의 '자산관리 플랫폼형 모델', NH투자증권은 농협 고객기반을 활용한 '대중화형 모델', 삼성증권은 초고액자산가 특화의 '프리미엄 WM 모델', KB증권은 채권(DCM)과 IPO 주관의 'IB 전문가형 모델'로 각각 포지셔닝하고 있다. 경영관리 직무 지원자는 이러한 각 사의 전략적 차별화를 이해하고, 한국투자증권의 포지셔닝이 왜 현재의 산업 환경에서 가장 유리한지를 논리적으로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국내대-경영관리

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6.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증권업 산업 분석에서 면접과 자기소개서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증권업이 '천수답식 브로커리지'에서 '다각화된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기에 있으며, 이 전환의 핵심이 발행어음·IMA·STO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사업 다변화는 경영관리 직무의 역할을 단순 '관리·지원'에서 '전략적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로 격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순이익 1조 원 클럽이 1개사에서 5개사로 확대된 것은 업계 전체의 체질 변화를 의미하며, 한국투자증권이 이 변화의 최선두에서 2조 원을 달성했다는 사실이 회사 선택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왜 증권업인가"와 "왜 한국투자증권인가"에 대한 답변의 논리적 기반이 바로 여기에 있다.

2장. 빅5 증권사 비교와 한국투자증권의 포지셔닝

2-1. 2025년 실적으로 본 경쟁 지형

2025 회계연도 연결 기준 실적을 비교하면 한국투자증권의 압도적 1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국투자증권은 영업이익 2조 3,427억 원, 당기순이익 2조 135억 원을 기록하며 양 항목 모두 업계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자기자본은 별도 기준 11.2조 원으로 단일 증권사로서는 업계 1위다.

미래에셋증권은 영업이익 1조 9,150억 원, 당기순이익 1조 5,935억 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72%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이며, 세전이익 기준으로는 2조 원을 돌파했다. 다만 연결 기준 자기자본은 12.3조 원으로 한국투자증권보다 크지만, 이는 해외 법인과 자산운용 등 연결 대상의 차이에 기인한다. 별도 기준으로는 한국투자증권이 1위다.

NH투자증권은 영업이익 1조 4,025억 원, 당기순이익 1조 315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초로 순이익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전 사업부문에서 고른 성장을 달성한 것이 특징이다. 자기자본은 7.5조 원 수준이다.

삼성증권은 영업이익 1조 3,768억 원, 당기순이익 1조 84억 원을 기록했다. WM(자산관리) 부문의 강점이 시장 호황과 맞물려 극대화된 결과다. 자기자본은 7.1조 원이다.

KB증권은 영업이익 9,115억 원, 당기순이익 6,823억 원으로 5개사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적을 보였다. 자기자본은 6.7조 원이다. 다만 IB 부문에서 DCM(채권자본시장) 13년 연속 1위, IPO 주관 3년 만의 1위 탈환이라는 성과를 달성해 질적 경쟁력에서는 돋보인다.

이 실적 비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투자증권과 2위 미래에셋증권의 순이익 차이가 약 4,2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3위 NH투자증권의 순이익(1조 315억 원)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로, 한국투자증권이 2위와 '넘사벽'의 격차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이 격차의 핵심 원인이 발행어음·IMA에서의 선점 우위라는 점을 지원자가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2. 각 사의 전략적 포지셔닝 심층 비교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확장의 독보적 선두주자.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 3.0' 비전 아래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융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을 1,330억 원에 인수한 것으로, 이는 증권사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의 신호탄이 되었다. 해외법인 세전이익이 4,981억 원(전체의 24%)에 달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국내대-경영관리

하는 것은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한 수준이며, 미국·홍콩·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12개국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총 고객자산(AUM)은 602조 원으로 1년 만에 120조 원을 증가시켰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6.4조 원으로 업계 1위이며, ETF 브랜드 'TIGER'는 국내 ETF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의 약점은 국내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에서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 밀리고 있다는 점과, 해외법인 확대에 따른 관리 복잡성 및 환율 리스크다.

NH투자증권: 농협 생태계를 활용한 ECM 강자. NH투자증권은 ECM(주식자본시장)에서 유상증자 3.7조 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2028년까지 '지속 가능한 ROE 12%'를 목표로 AI 혁신과 프리미엄 자산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최대 강점은 농협 그룹의 방대한 고객 기반(농·축협 조합원 수백만 명)에 대한 접근성이며, 약점은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로서 독립적 전략 수립에 제약이 있다는 점과, 해외 사업 기반이 미래에셋이나 한국투자증권 대비 취약하다는 점이다.

삼성증권: 자산관리의 절대 명가. 삼성증권은 고객자산가(1억 원 이상) 고객 34만 3,000명, 리테일 고객 총자산 393조 원의 '자산관리 명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초고객자산가(30억 원 이상) 서비스인 'SNI(Samsung & Investments)'와 디지털 마케팅(유튜브 구독자 282만 명)에서 업계를 선도한다. 2025년부터 발행어음 사업에 본격 진출하면서 수익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약점은 IB 부문에서 경쟁사 대비 존재감이 약하다는 점과, 삼성그룹 자체의 경영권 이수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KB증권: 채권시장의 전통적 강자. KB증권은 DCM(채권자본시장)에서 13년 연속 1위(48.1조 원, 점유율 25.8%)를 차지하며 '채권 명가'의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2025년에는 IPO 주관에서도 LG CNS, 대한조선 등 대형 딜을 확보하여 3년 만에 1위를 탈환했다. KB금융그룹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은행·보험·카드 등과의 시너지가 최대 강점이다. 반면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은 6% 내외로 빅5 중 가장 낮고, 발행어음 잔고도 한국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 대비 현저히 적다.

2-3. 한국투자증권의 경쟁 우위와 구조적 약점

한국투자증권의 경쟁 우위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발행어음·IMA 사업의 압도적 선점 우위가 가장 핵심적이다. 2017년 국내 1호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은 잔고 21.5조 원을 축적했으며, 이는 2위 미래에셋증권(8.2조 원)의 약 2.6배에 달한다. IMA 역시 2025년 11월 최초 인가를 받아 12월 1호 상품 1.1조 원을 완판했다. 발행어음의 운용마진율이 약 1.3%로 업계 최고 수준인데, 21.5조 원의 잔고에 1.3%를 적용하면 연간 약 2,800억 원의 운용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경쟁사가 단기간에 추격하기 극히 어려운 구조적 우위다.

카카오뱅크와의 전략적 제휴도 강력한 경쟁력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8%를 보유한 2대 주주로서, BanKIS(뱅크스) 서비스를 통해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및 국내·해외 주식 거래를 제공한다. 미니스탁(소수점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도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제공된다. 이 제휴를 통해 한국투자증권의 국내주식 시장점유율은 10.12%로 두 자릿수에 안착했으며, 이는 과거 7~8% 수준이던 점유율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린 결과다.

자기자본 11.2조 원(별도 기준 업계 1위)의 자본력도 핵심 경쟁력이다. 이 자본력이 발행어음·IMA·단기금융 등 자본 집약적 사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며, 대형 인수금융 딜에서도 자기자본 한도가 곧 경쟁력이 된다.

전 사업부문의 균형 잡힌 성장도 주목할 만하다. 2025년 운용 부문 +76.3%, 브로커리지 +41.8%, WM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국내대-경영관리

+29.1%, IB +14.9%로 특정 부문에 편중되지 않는 성장을 달성했다. 이는 특정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리스크 분산 효과를 의미한다.

독립 금융지주 체제의 유연성도 간과할 수 없다. KB(은행), NH(농협), 신한(은행)과 달리 은행 중심 금융지주에 속하지 않은 독립 증권 중심 금융지주 체제여서, 증권업 고유의 사업 기회에 대한 의사결정이 빠르고 유연하다. 발행어음·IMA에서의 선제적 인가 취득이 이 유연성의 대표적 결과물이다.

반면 구조적 약점도 명확하다. 가장 큰 취약점은 운용 수익 집중 리스크다. 운용(Trading) 부문이 순영업수익의 41.7%를 차지해, 시장 변동성에 따른 분기별 실적 변동이 크다. 실제로 2025년 4분기 별도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40.0% 급감했다. 두 번째 약점은 글로벌 사업 기반의 부족이다. 해외법인 순이익이 897억 원으로 전체의 4%에 불과해, 해외법인이 전체의 24%를 차지하는 미래에셋증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세 번째는 내부통제 리스크다.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사건(589억 원 전액 손실, 458건 자율배상), 직원 자금 유용 사건 등이 발생했으며, 이는 경영관리 부서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한다. 네 번째는 IPO 주관 경쟁력의 일시적 하락이다. 2024년 IPO 주관 1위였던 한국투자증권이 2025년에는 5~9위로 급락했는데, 이는 대형 딜 확보 경쟁에서 KB증권 등에 밀린 결과다.

2-4. 최근 6개월 주요 이슈 타임라인 (2025.10~2026.4)

2025년 10월 금감원이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같은 시기 한국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IMA 1호 사업자 인가를 받았으며, 11월 초 인가가 공식 확정되었다. 12월에는 IMA 1호 상품이 1.1조 원 규모로 출시 직후 완판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두 사건은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한쪽에서는 과거 사업의 부실이 드러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래 사업의 성과가 확인되는 대조적 상황이었다.

2026년 1월 한국투자증권은 벨기에펀드 투자자에 대한 일괄배상에 착수하며, 손실의 40~80% 수준을 자율적으로 배상하겠다고 발표했다. 2월에는 2025 회계연도 역대 최대 실적(순이익 2조 135억 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실적 호조와 내부통제 이슈가 병존하는 양면적 상황이 부각되었다. 3월에는 김성환 대표의 3연임이 확정되어 경영 안정성이 유지되었다. 4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코인원 지분 인수 검토 소식으로, 이는 미래에셋증권의 코빗 인수에 대응하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2-5.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경쟁사 비교 분석에서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논리는 "한국투자증권이 왜 1위인가"와 "1위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다. 단순히 "순이익 1위라서 지원합니다"는 설득력이 약하다. 발행어음·IMA 선점이라는 구조적 우위가 어떤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되었고, 이것이 경영관리 직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발행어음 잔고 21.5조 원의 운용마진 관리, IMA 신규 상품의 수익성 분석, 이 두 가지 신사업의 P&L을 기존 사업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경영관리의 새로운 핵심 역할이 되고 있다"는 식의 연결이 가능하다. 동시에 운용 수익 집중(41.7%)이라는 리스크와 글로벌 사업 부족이라는 과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이 회사를 깊이 이해하고 온 지원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벨기에펀드 사태는 부정적 이슈지만, 오히려 경영관리 직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 내부통제 강화, 금융상품 사후관리, 리스크 모니터링 등이 경영관리 부서의 핵심 역할이며,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경영관리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직무 선택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3장. 한국투자증권 심층 분석: 사업 구조, 전략, 차별화, 리스크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국내대-경영관리

3-1. 사업 구조와 부문별 수익 분석

한국투자증권의 2025년 별도 기준 순영업수익은 3조 5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0% 증가했다. 이 수치를 부문별로 뜯어보면 회사의 수익 구조와 전략적 방향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운용(Trading) 부문이 1조 2,762억 원(전년 대비 +76.3%, 비중 41.7%)으로 최대 수익원이다. 이 부문에는 채권·주식 자기매매 손익과 발행어음 운용이익이 포함된다. 2025년의 폭발적 성장은 증시 상승에 따른 주식·채권 운용 수익 증가와 발행어음 잔고 확대(21.5조 원)에 따른 운용마진 확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다만 이 부문의 높은 비중은 시장 변동성에 대한 노출도 의미하므로,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2025년 4분기 별도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40.0% 급감한 것이 이 리스크의 현실화를 보여준다.

IB(기업금융) 부문은 7,052억 원(+14.9%, 비중 23.0%)을 기록했다. 인수금융에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M&A 자문, 구조화금융,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에서 꾸준한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다만 IPO 주관 순위가 1위에서 5~9위로 하락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부동산PF 시장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어서 관련 총당금 적립 부담이 있으나,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고 있다.

브로커리지 부문은 4,896억 원(+41.8%, 비중 16.0%)을 달성했다. 카카오뱅크 제휴를 통한 बैं키스 서비스와 미니스탁 서비스가 리테일 고객 기반 확대에 크게 기여했으며, 국내주식 시장점유율 10.12% 안착이 이를 증명한다.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 수입도 크게 증가했다.

WM(자산관리) 부문은 2,089억 원(+29.1%, 비중 6.8%)으로 절대 규모는 작지만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퇴직연금, 랩어카운트, 펀드판매 등에서 고객 자산 잔고 기반의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IMA 상품의 본격 출시로 향후 WM 부문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기타 부문(약 3,769억 원, 비중 12.3%)에는 이자수익, 기타 영업수익 등이 포함된다.

3-2. 전략 방향: "아시아 No.1"을 향한 로드맵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전략 방향은 김남구 회장과 김성환 대표의 공개 발언, IR 자료, 밸류업 공시를 통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룹 비전은 "아시아 최고(No.1) 금융투자회사"이며, 김성환 대표는 이를 구체적으로 "노무라증권의 등이 보인다"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일본 최대이자 아시아 최대의 증권사로, 한국투자증권이 이를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적 방향 설정이다.

2025년 6월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플랜)에는 4대 정량 목표가 담겨 있다. 2030년까지 ROE 15% 이상 달성(2025년 실적 기준 약 14.0%이므로 1%p 추가 상승 필요), 자기자본 15조 원 이상 확보(현재 11.2조 원에서 34% 증가 필요), 개인자산 잔고 200조 원 달성(현재 80조 원대에서 2.5배 증가 목표), 해외 상품 판매액 60조 원 달성(현재 13.9조 원에서 4.3배 증가 목표)이 그것이다. 이 목표들은 경영관리 부서가 매년 사업 계획 수립 시 추적·관리해야 하는 핵심 KPI가 되므로, 지원자가 이 숫자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은 직무 이해도를 보여주는 효과적 방법이다.

3대 전략 우선순위는 리스크 관리 강화,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 디지털 혁신이다. 리스크 관리 강화는 벨기에펀드 사태와 부동산PF 부실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영관리 부서의 내부통제 기능과 직접 연결된다.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는 현재 해외법인 기여도가 4%에 불과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11개 거점(미국·홍콩·베트남·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의 확대 운영과 코인원 인수 검토 등이 구체적 행보다. 디지털 혁신은 카카오뱅크 제휴 심화, AI 기반 투자 서비스, STO 인프라 구축 등을 포괄한다.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국내대-경영관리

3-3. 한국투자금융지주 그룹 구조의 이해

경영관리 직무는 단일 회사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투자금융지주 그룹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투자금융지주(코스피 071050)는 한국 최대의 독립 금융투자 지주회사로, 산하에 다수의 핵심 계열사를 두고 있다.

핵심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그룹 이익의 대부분을 창출하며, IB·브로커리지·WM·Trading 전 영역을 담당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ETF 브랜드 'ACE'를 운영하며, 2025년 AUM이 7.2조 원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투자파트너스(VC)와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PEF)는 비상장기업 투자와 바이아웃 딜을 담당한다.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캐피탈,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이 그룹의 비증권 금융 사업을 영위한다.

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로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8%(2대 주주), 토스뱅크 지분 보유가 눈에 띈다. 이는 전통 금융과 핀테크의 연결이라는 전략적 포석으로, 카카오뱅크 앱을 통한 증권 서비스 제공이 실제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외 11개 거점(미국 뉴욕·홍콩·베트남 호치민·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싱가포르 등)을 운영하며, 베트남 현지 증권사(KIS Vietnam Securities)는 현지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3-4. 차별화 포인트 5가지의 심층 해석

첫 번째 차별화 포인트인 발행어음·IMA 선점 우위는 앞서 상세히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왜 한국투자증권이 1호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구조적 배경을 추가로 분석한다. 2013년 종투사 제도 도입 당시, 대부분의 증권사가 종투사 인가를 받는 것 자체에 만족했을 때,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이라는 새로운 수익 모델에 선제적으로 투자했다. 은행 계열 증권사들은 모회사인 은행과의 이해충돌(예금 대체 우려) 때문에 발행어음 사업에 소극적이었고, 미래에셋은 글로벌 확장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었다. 독립 금융지주 체제의 한국투자증권만이 발행어음 사업에 전력투구할 수 있었고, 이 전략적 판단이 현재의 압도적 우위로 이어진 것이다. 경영관리 직무와의 연결점은 명확하다. 발행어음 21.5조 원의 조달·운용·리스크를 관리하고, IMA 신상품의 수익성을 분석하며, 이 신사업들의 성과를 기존 사업과 통합적으로 경영진에 보고하는 것이 경영관리의 핵심 역할이 되었다.

두 번째 차별화 포인트인 카카오뱅크 전략적 제휴의 깊이를 살펴보면, 이 제휴는 단순한 판매 채널 확보를 넘어선다. 카카오뱅크 앱 내 뱅키스 서비스를 통해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은 한국투자증권의 HTS/MTS를 거치지 않으므로, 기존 증권사 고객과는 전혀 다른 사용자 경험을 가진 '뉴 리테일' 세그먼트다. 이 고객군의 특성(모바일 네이티브, 소액 다빈도 거래, 해외주식 선호)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상품·서비스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경영관리의 전략기획 기능에 포함된다.

세 번째로 자본력 기반 사업 확장, 네 번째로 균형 잡힌 수익 포트폴리오, 다섯째로 독립 금융지주 체제의 유연성은 앞 장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이 다섯 가지가 상호 연결되어 시너지를 내는 구조에 주목한다. 독립 금융지주 체제(5번)가 유연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고, 이것이 발행어음·IMA 선점(1번)으로 이어졌으며, 이 사업의 성공이 자본력 강화(3번)로 귀결되어, 다시 더 큰 사업 기회(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4번)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다. 카카오뱅크 제휴(2번)는 이 선순환에 리테일 기반이라는 또 하나의 축을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선순환'의 이해는 면접에서 회사의 경쟁력을 설명할 때 매우 효과적이다.

3-5. 리스크 요인의 체계적 분석

한국투자증권이 직면한 리스크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경영관리 직무가 관리해야 할 리스크 맵이 드러난다.

시장 리스크(Market Risk) 측면에서 운용 부문의 높은 비중(41.7%)은 시장 변동성에 대한 노출을 의미한다. 2025년 4분기 실적 급감이 이를 실증했다.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평가손익 변동, 환율 변동에 따른 해외투자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국내대-경영관리

평가손익 변동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리스크다.

신용 리스크(Credit Risk) 측면에서 부동산PF 관련 익스포저가 약 4.4조 원(자기자본의 42%)에 달하며, PF 채무보증 잔액은 6.3조 원이다. 계열사 한국투자캐피탈의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6.4%로 악화된 것은 그룹 차원의 리스크 요인이다. 2027년 시행 예정인 부동산PF 건전성 규제 강화는 추가적인 총당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 리스크(Operational Risk) 측면에서 벨기에펀드 불안전판매 사건과 직원 자금 유용 사건은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금감원의 현장검사와 자율배상 착수는 이 리스크가 현실화된 사례다. 경영관리 부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 필요성이 여기서 직접 도출된다.

경쟁 리스크(Competitive Risk) 측면에서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신규 진출로 과점 구조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IPO 주관 순위 하락(1위→5~9위)도 IB 경쟁력의 일시적 약화를 시사한다.

전략 리스크(Strategic Risk) 측면에서 해외사업 기여도가 4%에 불과한 것은, "아시아 No.1"이라는 비전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코인원 인수 검토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의 시도이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3-6.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회사 심층 분석에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논리는 "성장과 과제의 동시 이해"다. 한국투자증권의 2조 원 순이익 달성이라는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운용 수익 집중 리스크, 글로벌 사업 부족,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영관리 직무와의 연결에서는, "이 세 가지 과제가 모두 경영관리 부서의 핵심 역할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운용 수익 집중 리스크의 모니터링은 성과분석·예산관리의 영역이고,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기획은 사업계획 수립의 영역이며, 내부통제 강화는 내부회계관리·컴플라이언스의 영역이다.

밸류업 플랜의 4대 정량 목표(ROE 15%, 자기자본 15조, 개인자산 200조, 해외상품 60조)를 면접에서 정확히 언급할 수 있다면, "이 회사의 미래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온 지원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4장. 인재상·조직문화·경영관리 도메인 선호 인재 특성

4-1. 공식 인재상 4대 키워드와 핵심가치

한국투자금융그룹은 전 계열사에 공통으로 4대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열정(Passion)으로, "모든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둘째는 도전정신(Challenge)으로,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하는 사람"이다. 셋째는 전문역량(Expertise)으로, "직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스킬을 갖춘 사람"이다. 넷째는 변화주도(Change Leadership)로, "열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다.

핵심가치는 신뢰(Integrity), 감동(Impression), 도전(Innovation)의 3로 압축되며, 행동규범으로 "원칙을 소중히, 작은 것도 소중히, 새로운 것을 과감히"를 강조한다. 이 3개 핵심가치 중 신뢰(Integrity)가 경영관리 직무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재무보고의 정확성, 규제보고서의 적시 제출, 내부통제 체계의 운영 등 경영관리의 모든 업무가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룹 경영이념의 핵심 철학은 "금융은 사람과 사람 간의 무형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우리의 비즈니스도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국내대-경영관리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의해 성패가 결정된다"는 인재 중심 사상이다. 이 철학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김남구 회장이 2002년부터 23년 연속 직접 대학교 채용설명회에 참석하는 파격적 행보로 실천되고 있다. 회장이 직접 대학을 방문해 지원자들과 대면하는 것은 국내 대형 금융기관 중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관행이다.

4-2. 채용에서의 실질적 평가 기준: "스펙보다 다양성과 의외성"

공식 인재상과 함께 실제 채용에서 중시하는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남구 회장은 공개 채용설명회에서 "획일화된 스펙이 아닌 다양성과 의외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는 학점·토익·자격증 등 정량적 스펙보다 지원자의 고유한 경험, 사고방식, 잠재력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다.

인사담당자 인터뷰에서도 일관된 메시지가 확인된다. "Good Person(일반적으로 좋은 사람)보다 회사와 맞는 사람을 뽑고자 한다"는 것이 한국투자증권의 채용 철학이며, "겸허한 자세로 배우고자 하는 태도와 열정을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 면접 평가의 핵심 기준이다. 이는 경영관리 직무에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영관리는 입사 후 배치되는 세부 직무(전략기획, 재무회계, 인사조직, 상품관리, 총무 등)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특정 스펙보다는 "어디에 배치되든 빠르게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는 잠재력"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이다.

면접에서의 핵심 평가 포인트를 종합하면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왜 증권업인가, 왜 한국투자증권인가, 왜 경영관리인가"에 대한 명확하고 논리적인 답변이다. 이 세 가지 질문은 거의 모든 면접에서 반복되며, 단순한 "관심이 있어서"를 넘어 산업·회사·직무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답변이 필요하다. 둘째, 직무 관련 경험의 적극적 어필이다. 회계·재무·기획·데이터 분석 등 경영관리와 관련된 학업·인턴·프로젝트 경험을 구체적 성과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셋째, 한국투자증권의 사업·비전·최근 뉴스에 대한 "자기 생각"이다. 단순히 뉴스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뉴스가 경영관리 직무에 어떤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수준의 해석을 보여줘야 한다. 넷째, 단순 지식이 아닌 진지한 자세와 열정이다. "세상에 완벽하게 준비된 신입사원은 없다"는 전제 하에,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배우고자 하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4-3. 조직문화: 성과주의·수직성·팀별 편차의 공존

잡플래닛 574건 리뷰(평점 3.2/5.0)와 블라인드 현직자 후기를 종합 분석하면 한국투자증권의 조직문화는 세 가지 특성이 공존하는 복합적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첫째, 강한 성과주의 문화다. 증권업 자체가 성과 중심의 산업이지만, 한국투자증권은 특히 성과에 대한 보상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2025년 역대 최대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사원급 기준으로도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야망 있고 욕심 있으면 한투는 좋은 직장"이라는 현직자 평가가 이 문화를 잘 요약한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높은 연봉·성과급, 탄탄한 비즈니스 기반, 능력 있는 동료와의 협업 기회가 강조된다.

둘째, 전통적으로 수직적인 조직 구조다. 블라인드 후기에서 "군대 문화"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왕권 정치이나 백성들끼리는 화목하게 지냄"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권한이 강하고 위계질서가 명확한 전통적 금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다. 다만 이 수직성은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어, 발행어음·IMA 등에서의 선제적 사업 진출이 가능했던 배경이기도 하다.

셋째, "팀 바이 팀(Team by Team)"이라 불리는 팀별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같은 한국투자증권이라도 배치되는 팀에 따라 문화, 워크라이프밸런스, 업무 강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 현직자들의 공통된 평가다. 이는 증권사의 사업부 중심 조직 구조에서 비롯되는 보편적 현상이기도 하다.

복리후생 측면에서는 캐주얼 복장 허용, PC off제는 미시행이나 사원 기준 월 50만 원 추가 수당(시간외수당 개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국내대-경영관리

념) 지급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결산기(1~2월)와 사업계획 수립기(8~11월)에는 야근이 잦다는 것이 경영 관리 직무 현직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4-4. 경영관리 도메인이 선호하는 인재 특성: 역량·사고방식·행동 패턴

증권사 경영관리 직무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은 업무 도메인의 구조적 특성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이 직무는 "프론트 오피스(영업·트레이딩)와 백 오피스(결제·정산·IT)를 연결하는 미들 오피스이면서, 동시에 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참모 조직"이라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이 위치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필수(Must-Have)와 우대(Nice-to-Have)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필수 역량(Must-Have)의 첫 번째는 꼼꼼함과 정확성이다. 증권사 현직자 멘토의 표현을 빌리면 "서류는 빠짐 없는지, 숫자의 오차는 없는지 챙기는 마인드셋"이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다. 경영관리에서 다루는 숫자(재무제표, 손익 데이터, 예산, 규제보고서)에 오류가 있으면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 규제기관의 제재, 심지어 회계 부정 의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1원의 차이가 전체 결산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직무의 현실이다.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 분석력이다. "모든 업무가 숫자로 표시되는 만큼"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수다. 단순히 Excel에서 SUM 함수를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예산 대비 실적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경쟁사 대비 성과 벤치마킹을 수행하며, 향후 트렌드를 예측하는 분석적 사고가 필요하다. 점차 Python, BI 도구 (Tableau, Power BI) 등 디지털 분석 역량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세 번째는 부서 간 조율 능력이다. 경영관리는 IB, WM, Trading,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IT 등 거의 모든 부서와 상시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직무다. 사업계획 수립 시 각 부서의 목표를 조율하고, 결산 시 각 부서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경영진 보고 시 각 부서의 성과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프론트 부서의 공격적 목표와 리스크 부서의 보수적 평가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외교적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요구된다.

네 번째는 규제 민감성(Regulatory Sensitivity)이다. 증권업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의 감독·검사를 상시적으로 받는 고규제 산업이다. 경영관리 부서는 영업보고서, 경영실태보고서, NCR 보고 등 다양한 규제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제출해야 하며, 금감원 검사 시 자료 준비와 대응을 총괄한다. 규제 변화(자본시장법 개정, 회계기준 변경,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다섯째는 체계적 계획력과 마감 관리 능력이다. 경영관리의 업무는 대부분 명확한 마감 기한이 있다. 결산 마감(월/분기/반기/연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금감원 보고서 제출 기한, 사업계획 수립 일정 등이 연간 캘린더에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하나라도 지연되면 연쇄적으로 후속 일정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 마감을 동시에 관리 하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예상치 못한 이슈(규제기관의 추가 자료 요청, 시스템 오류 등) 발생 시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우대 자질(Nice-to-Have)로는 빠른 적응력과 학습력이 첫 번째다. 경영관리 신입사원은 전략기획, 재무회계, 인사조직, 상품관리, 총무, 법무, IR 등 다양한 세부 직무 중 어디에 배치될지 사전에 알기 어렵다. "어디에 배치되든 빠른 적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현직자 조언은 이 현실을 반영한다. 두 번째는 근성과 끈기이다. "바쁘고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증권업계 특성상" 체력적·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하며, 결산기의 장시간 근무, 금감원 검사 대응의 긴장감 등을 견딜 수 있는 지구력이 요구된다. 세 번째는 거시적 관점의 전략적 사고다. 경영관리, 특히 전략기획 파트에서는 개별 부서의 성과를 전사적 관점에서 조감하고, 산업 트렌드와 경쟁 환경 변화를 회사의 전략 방향에 연결하는 거시적 사고가 중요하다. 네 번째는 금융시장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다. 비록 프론트 오피스 직무는 아니지만, 주가·금리·환율·부동산 시장 동향이 회사의 실적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일간 경영실적 분석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국내대-경영관리

을 위해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4-5. 자격증과 학력에 대한 현실적 평가

한국투자증권은 공식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금융 자격증 보유는 금융권에 대한 지속적 관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CPA(공인회계사)는 재무회계 배치 시 가장 강력한 어필 포인트가 되며, CFA(공인재무분석사)는 전략기획이나 IR 업무에 유리하다. 투자자산운용사, 재경관리사, 금융투자분석사 등은 금융업에 대한 관심과 기본 지식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학력 측면에서는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전공이 자연스럽게 유리하지만, "다양성과 의외성"을 중시하는 한국투자증권의 채용 철학상 비경영계열 전공자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 핵심은 전공이 무엇이든 "경영관리 직무에 대한 이해와 열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4-6.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인재상·조직문화 분석에서 도출되는 지원 전략의 핵심은 "차별화된 진정성"이다. 687명이 지원하는 높은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는, 1) "왜 한투의 경영관리인가"에 대한 구조적 답변(산업→회사→직무의 논리적 연결), 2) 인재상 4대 키워드 중 최소 2가지를 본인의 구체적 경험으로 증명, 3) 최근 뉴스(순이익 2조 달성, IMA 1호 완판, 벨기에펀드 배상 등)에 대한 "자기 관점의 해석"이 필요하다. 특히 "스펙보다 다양성과 의외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학점이나 자격증보다는 "이 사람과 함께 일하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겠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수직적 조직문화와 "팀 바이 팀" 특성에 대해서는, 면접에서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조직의 방향성에 맞추어 빠르게 적응하고 배우겠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현명한 접근이다.

5장. 경영관리 직무 심층 분석: 업무 구조, 역량, KPI, 워크플로우

5-1. 채용공고 개요와 경쟁률

FY2026 채용연계형 인턴 공채는 GEM(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해외대, 국내대의 3개 트랙으로 진행되며, PB·IB·PF·운용·홀세일·퇴직연금·리서치·경영관리·글로벌·리스크관리·IT/Digital 등 13개 직무를 모집한다. 학사 이상 졸업(예정)자가 지원 가능하며,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직무역량평가(AI 기반)→1차 면접(실무진/인성)→인턴 실습→최종면접→채용검진→정규직 전환 순서로 진행된다. 채용연계형 인턴이라는 점에서, 인턴 기간 동안의 실무 수행 능력과 조직 적합성이 최종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전년도(FY2025) 경영관리 직무에는 687명이 자소서를 작성하여 전체 13개 직무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경영관리가 "비전공자도 지원 가능한 관리 직무"라는 인식과, "증권사 본사 근무의 안정성"에 대한 선호가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높은 경쟁률은 역설적으로 "명확한 차별화 포인트 없이는 합격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687명의 지원자 대부분이 비슷한 학점·토익·자격증을 갖추고 있을 것이므로, 앞서 분석한 "산업·회사·직무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차별화된 경험"이 합격을 좌우한다.

5-2. 경영관리 직무의 핵심 역할과 세부 기능

한국투자증권의 경영관리는 '본사관리' 기능을 포괄하는 직무로, 세부적으로 여러 기능으로 구분된다. 삼성증권은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익성 위주의 경영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내부통제시스템 관리를 강화하며, 조직문화 혁신을 주도하는 직무"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본질적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전략기획 기능은 경영전략 수립, 중장기 사업계획 작성, 연간 예산 편성·배분·관리, 경영실적 분석(일간/월간/분기/연간), 경쟁사 벤치마킹, CEO 보고자료 작성, 밸류업 플랜·IR 자료 지원 등을 포괄한다. 이 기능은 경영관리 직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국내대-경영관리

무 중에서도 가장 전략적인 성격을 띠며, 경영진과의 접점이 가장 빈번하다.

재무회계 기능은 결산(월/분기/반기/연간), 재무제표 작성(K-IFRS 기준), 외부감사 대응, 세무 신고, 자금 관리 (유동성 관리, 자금 조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금감원·거래소 재무보고서 제출 등을 담당한다. CPA 자격 보유자가 배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결산 마감 시즌에 업무 강도가 가장 높다.

인사조직 기능은 인사관리(채용, 이동, 승진, 퇴직), 보상·평가 체계 운영, 교육·연수 프로그램 기획·운영, 조직문화 혁신, 인력계획(Headcount Planning), 노무관리 등을 포괄한다. 김남구 회장이 "사람에 의해 성패가 결정된다"고 강조하는 인재 중심 철학이 이 기능의 중요성을 배가시킨다.

상품관리 기능은 금융상품(펀드, ELS/DLS, 랩어카운트 등)의 사후관리, 상품 승인 프로세스(Product Governance) 운영, 적합성·적정성 평가 지원,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 벨기에펀드 사태 이후 이 기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총무/법무/IR 기능은 사무실·지점 관리, 구매·조달, 법률 자문·소송 관리,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지원, IR(투자자 관계) 활동 지원, 신용평가 대응 등을 포괄한다.

5-3. 업무 사이클: 일간·월간·연간의 리듬

경영관리 직무는 명확한 시간적 리듬을 가지고 있다. 이 리듬을 이해하는 것은 직무의 구체적 모습을 그리는 데 필수적이다.

일간 업무의 경우, 아침 출근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일(또는 당일) 경영실적 데이터와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주가 변동, 거래량, 수수료 수입, 운용 손익, 환율, 금리 동향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경영진 보고자료(일일 손익현황, KPI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업데이트한다. 오전 중으로 각 사업부의 실적 데이터를 취합·검증하고, 이상치(Anomaly)가 있으면 해당 부서에 확인한다. 오후에는 규제기관 보고서 작성·검토, 부서 간 협업 미팅(사업계획 관련, 신규 프로젝트 관련, 감사 대응 관련 등), 경영진 프레젠테이션 자료 작성 등을 수행한다. 퇴근 전에는 다음 날의 보고 일정과 마감 과제를 정리한다.

월간 업무의 경우, 매월 초에는 전월 결산 마감 작업이 진행된다. 각 사업부의 월간 손익을 확정하고, 예산 대비 실적 차이분석(Variance Analysis)을 수행한다. "왜 IB 수수료가 예산 대비 15% 초과 달성되었는가", "왜 WM 부문의 판관비가 예산을 5% 초과했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 월 중에는 금감원·금투협에 제출하는 월간 보고자료(영업보고서 등)를 준비하고, 부서별 KPI 달성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월말에는 다음 달의 주요 일정과 이슈를 정리하고, 경영진 월례 보고를 준비한다.

연간 사이클은 가장 뚜렷한 패턴을 보인다. 1~2월은 연간 업무 중 가장 바쁜 시기로, 전년도 연간 결산 마감, 외부감사 대응(회계법인과의 협업), 연간 사업보고서(DART 공시) 초안 작성에 집중된다. 3월에는 사업보고서를 DART에 최종 제출하고, 정기 주주총회 개최를 지원한다. 배당 결정, 이사 선임, 사업 계획 승인 등 주주총회 안건의 실무적 준비가 경영관리의 몫이다. 4~5월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시기로, 전년도 성과 분석을 마무리하고, 경영 전략 관련 장기 과제(조직 개편, 신사업 검토, 규제 대응 전략 등)를 추진한다. 6~7월에는 반기 결산 작업이 진행되며, 반기보고서를 제출한다.

8~11월은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예산 편성의 핵심 시기다. CEO의 전략 방향 지침 접수 →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작성·각 부서 배포 → 부서별 사업계획(매출 목표, 비용 예산, 핵심 전략과제, 인력 계획) 수합 → 부서 간 목표 조율 회의 주관 → 전사 통합 사업계획안 작성 → 경영진 보고·수정 → 이사회 승인·확정·배포의 과정이 약 3~4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각 사업부의 공격적 목표와 본사의 현실적 자원 배분 사이에서 조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국내대-경영관리

올하는" 경영관리의 핵심 역할이 극대화된다. 12월에는 연간 성과평가·인사평가를 지원하고, 연간 결산 준비에 착수한다.

5-4. 이해관계자 맵의 심층 분석

경영관리 직무의 이해관계자 맵은 내부와 외부로 구분되며, 각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방식과 빈도를 이해하는 것이 직무의 본질을 파악하는 핵심이다.

내부 이해관계자 중 CEO·경영진은 경영관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다. 일일 경영실적 보고, 월간·분기 경영분석 보고, 사업계획 승인 요청, 이사회 안건 준비 등에서 직접 보고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경영진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형식(데이터 중심 vs. 전략적 시사점 중심), 보고의 타이밍(언제 어떤 수준의 보고를 원하는가),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상세 설명 vs. 핵심 요약)을 파악하고 맞추는 것이 신입 경영관리 담당자의 첫 번째 학습 과제다.

각 사업부(IB·Sales&Trading·WM·브로커리지 등)는 경영관리의 "데이터 제공자이자 예산 사용자"다. 실적 데이터를 제공받고, 예산을 배분하며, 성과를 평가한다. 사업부 입장에서 경영관리는 "숫자를 요구하고 예산을 깎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업계획 수립 시 각 사업부의 목표가 상충하는 경우(예: IB 부문이 인력 충원을 요구하지만 비용 예산은 제한적인 경우)를 조율하는 외교적 역량이 필요하다.

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 부서와는 위험자본 배분,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관리, 내부통제 체계 운영에서 긴밀하게 협업한다. 경영관리가 수익성(P&L) 관점을, 리스크관리가 건전성(위험) 관점을 각각 담당하면서,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경영진 의사결정의 핵심이다.

인사·IT 부서와는 조직관리, 인력계획, 경영정보시스템(MIS) 구축·운영에서 협업한다. 특히 MIS는 경영관리의 데이터 분석 기반이므로, IT 부서와의 시스템 요구사항 소통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외부 이해관계자 중 금융감독원은 가장 중요한 규제기관으로, 영업보고서, 경영실태보고서, 내부통제 관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정기·수시 검사에 대응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에는 공시무무를 이행하고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보고서를 제출한다. 회계법인과 법률자문 기관과는 외부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법적 자문 등에서 협업한다. 주주·투자자·신용평가사에 대해서는 IR 활동, 경영실적 공시, 신용등급 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코스피 상장사이므로 주기적인 실적 공시와 IR 활동이 필수이며, 경영관리 부서가 이를 지원한다.

5-5. 필요 역량의 체계적 정리

기술적 역량(Technical Skills)으로는 재무제표 분석과 K-IFRS 이해가 가장 기본적이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를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IFRS 9), 리스 회계(IFRS 16) 등 증권사 특유의 회계 이슈를 이해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 등 금융 규제에 대한 지식도 필수다. 특히 NCR은 증권사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경영관리 부서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한다.

데이터 분석 역량으로는 Excel 고급 활용(VBA·매크로, 피벗테이블, 고급 함수)이 가장 기본적이며, 점차 BI 도구(Tableau, Power BI)와 Python 기초까지 요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시각화하여 경영진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드는 능력이 중요하다.

사업계획서 작성과 예산 편성 능력은 전략기획 기능의 핵심이다. 전사 차원의 매출 목표, 비용 예산, 투자 계획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국내대-경영관리

을 수립하고, 각 사업부별로 배분하며, 실행 후 성과를 추적·분석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소프트 스킬(Soft Skills) 측면에서는 경영진 대상 보고서 작성과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CEO와 임원진에게 보고하는 자료는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한가"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논리적 구조화, 핵심 메시지 도출, 간결한 시각화가 핵심이다. 부서 간 조율(Cross-functional Coordination) 역량은 앞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경영관리 직무의 본질적 요소다. 데이터 기반 분석적 사고(Analytical Thinking)는 직감이 아닌 근거에 기반해 판단하고 제안하는 습관을 의미한다. 정확성에 대한 집착(Attention to Detail)은 재무보고와 규제보고에서 오류를 방지하는 필수적 자질이다. 시간 압박 하의 문제해결 능력(Problem Solving under Pressure)은 결산 마감, 감사 대응, 금감원 검사 등 시간적 압박이 큰 상황에서 빛을 발한다.

관련 자격증은 CPA(공인회계사), CFA(공인재무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재경관리사, 금융투자분석사 등이 있으나, 한국투자증권은 공식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이 자격증들은 "금융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자기계발 의지"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5-6. KPI와 성과 평가 체계

경영관리 직무의 성과 평가는 정량적 KPI와 정성적 평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정량적 KPI로는 예산 달성률(전사 및 사업부별 예산 대비 실적 비율)이 가장 대표적이다. 전사 차원에서 연간 매출 목표, 영업이익 목표, 순이익 목표가 설정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 사업부의 하위 목표가 배분되며, 이 전체의 달성률을 추적·관리하는 것이 경영관리의 핵심 역할이다. 보고서 정시 제출률도 중요한 KPI인데,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등에 제출하는 규제보고서의 기한 준수 여부가 직접적으로 평가된다. 단 한 건의 지연도 규제기관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100% 정시 제출'이 기본 목표다. 비용효율성(판관비율, 비용절감 달성도)은 "같은 비용으로 더 큰 성과를 내는가"를 측정하며, 경영실적 분석 정확도(실적 예측 대비 실제 차이율)는 전략기획 기능의 예측력을 평가한다. 결산 마감 소요일수도 효율성 지표로 활용되어, 결산을 며칠 만에 완료하는가 팀의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정성적 KPI로는 경영진 의사결정 지원 기여도(경영진이 경영관리의 분석·보고를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했는가), 부서간 협업 효과성(타 부서와의 협업이 원활했는가,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율했는가), 규제 대응 품질(금감원 검사 시 지적사항 건수, 대응의 적시성·충실성), 전략과제 추진 성과(밸류업 플랜, 디지털 전환 등 전사 전략과제에 대한 기여)가 평가된다.

5-7. 대표 업무 시나리오 3가지

시나리오 1: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9~11월). 이 시나리오는 경영관리 직무의 전략적 역할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업무다. 먼저 CEO가 차년도 경영환경 전망과 전략 방향을 제시하면, 경영관리 부서가 이를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지침으로 변환하여 각 사업부에 배포한다. 지침에는 매출 목표 가이드라인, 비용 예산 범위, 핵심 전략과제 방향, 인력 계획 기준 등이 포함된다. 각 사업부는 이 지침에 따라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IB 부서는 IPO 시장 호조를 전제로 공격적 목표를 설정하고, WM 부서는 보수적 성장을 제안하며, Trading 부서는 시장 변동성을 이유로 넓은 범위의 목표를 제시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 경영관리 부서는 각 부서의 계획을 검토하고, 전사 차원의 정합성을 확인하며, 부서 간 목표 조율 회의를 주관한다.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어느 부서에 우선 배분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이 회의에서, 경영관리는 중립적 조정자이면서 동시에 전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전략적 참모 역할을 한다. 최종적으로 전사 통합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경영진에 보고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배포한다.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국내대-경영관리

시나리오 2: 분기 경영실적 분석. 분기말이 되면 경영관리 부서는 해당 분기의 전사 실적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수료수익(위탁매매, IB, 자산관리), 자기매매손익(채권·주식·파생상품), 이자수익, 발행어음 운용이익, 판관비 등 수십 개 항목의 데이터를 각 사업부와 재무회계 시스템에서 취합한다. 이어서 예산 대비 차이분석(Variance Analysis)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예산 대비 20% 초과 달성된 것은 해외주식 거래량 급증에 기인하며, 이 중 카카오뱅크 뱅키스 채널의 기여가 35%를 차지한다"는 식의 원인 분석이 이루어진다. 경쟁사 실적과의 벤치마킹도 수행하여, "우리의 IB 수수료 성장률은 15%인데 KB증권은 28%를 달성했고, 이는 LG CNS IPO 주관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식의 비교 분석을 한다. 부진 사업부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이 모든 내용을 CEO 보고용 경영분석 보고서(PPT 30~50페이지, Excel 상세 데이터 포함)로 작성한다.

시나리오 3: 금감원 검사 대응. 금감원의 현장검사 통보가 접수되면, 경영관리 부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먼저 검사 범위와 요청 자료 목록을 파악하고, 유관 부서(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IB, WM, IT, 법무 등)에 자료 협조를 요청한다. 각 부서에서 수집된 자료를 검증하고, 일관성을 확인하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사팀에 제출한다. 현장검사 기간(보통 2~4주) 동안에는 검사팀의 추가 자료 요청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며, 필요시 해당 부서 담당자와 검사관의 면담을 조율한다. 검사 종료 후에는 지적사항을 분석하고, 후속 조치 계획(개선 방안, 이행 일정, 담당 부서 지정)을 수립하여 경영진에 보고한다. 벨기에펀드 사태에서 드러났듯, 이 과정에서 경영관리의 Cross-functional 조율 역량이 가장 극명하게 시험받는다.

5-8. 커리어 패스와 성장 경로

한국투자증권의 경영관리 직무 커리어 패스는 사원(5급, 입사 1~3년)→대리(3~4년)→과장(3~4년)→차장→부장→본부장/임원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금융권 경로를 따른다.

주니어(사원, 0~3년차)는 데이터 수집·검증, Excel 기반 분석, 보고서 초안 작성, 규제보고서 작성 보조 등 실무의 기초를 쌓는 시기다. 이 시기에 "숫자에 대한 감각"과 "보고서 작성의 기본기"를 체득하는 것이 향후 성장의 기반이 된다. 미드레벨(대리~과장, 4~7년차)은 독립적 분석 수행, 사업계획 수립 실무 주관, 부서 간 조율 회의 리드, 경영진 보고 참석 등 실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시기다. 시니어(차장~부장, 8~12년차)는 전사 전략 수립에 직접 참여하고, 경영진에 직접 보고하며, 팀원을 관리하는 리더 역할을 수행한다. 임원급은 CFO(최고재무책임자), CSO(최고전략책임자), CHRO(최고인사책임자) 등으로 전사 경영의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사내 이동의 경우, 경영관리에서 출발하여 리스크관리, IR, 재무, 인사, 컴플라이언스 등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경영관리의 폭넓은 업무 범위가 타 부서 이해도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그룹사 이동으로는 한국투자신탁운용, 한투파트너스, 한투캐피탈 등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외부 이동으로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컨설팅펌(맥킨지, BCG, 베인 등의 금융 프랙티스), 회계법인 금융팀(삼일·삼정·안진·한영) 등이 일반적인 경로다. 경영관리 경험은 "금융기관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고 있다"는 강점이 되므로, 커리어의 선택지가 넓다는 것이 이 직무의 큰 장점이다.

5-9.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직무 분석에서 도출되는 지원 전략의 핵심은 "구체성"이다. "경영관리를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잔고 21.5조 원의 운용마진 분석, IMA 신상품의 수익성 평가, 밸류업 플랜의 4대 목표 추적·관리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이 요구하는 경영관리 역할에 기여하고 싶습니다"라는 수준의 구체적 연결이 필요하다. 업무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인데, 예를 들어 "8~11월 사업계획 수립 시 각 사업부의 목표를 전사 차원에서 조율하는 역할에 관심이 있으며, 대학에서 OO 프로젝트를 통해 다수 이해관계자의 목표를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국내대-경영관리

조울한 경험이 있습니다"라는 식의 연결이 가능하다. 687명의 경쟁자 중에서 "이 직위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온 지원자"는 소수이며, 이것이 곧 차별화 포인트가 된다.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1. 대한금융신문, 2025 상반기 주요 증권사 별도 자기자본 현황 —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438>
2. 아시아에이, 증권업 규제 지형 대전환 — <https://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045>
3. 이콘밍글, 역대급 불장이 만든 사상 최대 성적표 — <https://econmingle.com/economy/securities-firms-surpass-banks-2-trillion/>
4. 시사저널e, 증권가 디지털 사업 투자 붐 —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368>
5. 서울신문, 한국투자증권 순이익 2조 클럽 입성 — <https://www.seoul.co.kr/news/economy/business-news/2026/02/19/20260219500149>
6. 녹색경제신문, 김성환호 한국투자증권 2조 클럽 폭풍성장 배경 —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37007>
7. 한국경제, 미래에셋증권 2025 사상 최대 실적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093112i>
8. 이투데이, NH증권 당기순이익 1조 원 시대 개막 —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1064>
9. 아주경제, 삼성증권 자산관리 명가 입증 — <https://www.ajunews.com/view/20251223091659536>
10. KB뱅크, KB증권 IPO주관 3년 만에 1위 — <https://kbthink.com/news-list/view.html?newsId=20260102090002110>
11. 녹색경제신문, 한국투자증권 해외법인 기여도 주목 —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37247>
12. 청년일보, 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 투자자 일괄 구제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210199>
13. 블로터, 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 배상 상향 전망 —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48069>
14. 중앙이코노미뉴스, 금감원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검사 — <https://www.joongan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7199>
15. 위키백과, 한국투자증권

심층 분석 보고서: 한국투자증권-국내대-경영관리

- 권 —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D%88%AC%EC%9E%90%EC%A6%9D%EA%B6%8C>
16. 네이트뉴스, 한국투자증권 코인원 인수 검토 — <https://news.nate.com/view/20260402n34526>
17. KIS신용평가, 한국투자증권 크레딧 오피니언 — <https://kisrating.com/fileDown.do?menuCd=R8&gubun=2&fileName=rs20250926-26.pdf>
18. 한국투자금융지주 CEO 페이지 — <https://www.koreaholdings.com/kr/company/ceo>
19. 서울경제, 한투 올 영업이익 3조 원 가시권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Z5EU9759>
20. 굿모닝경제, 한국금융지주 2030년 자기자본 15조 ROE 15% — <https://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644>
21. 나무위키, 한국투자증권 — <https://namu.wiki/w/%ED%95%9C%EA%B5%AD%ED%88%AC%EC%9E%90%EC%A6%9D%EA%B6%8C>
22. FnGuide 기업정보, 한국금융지주 — https://comp.fnguide.com/SVO2/ASP/SVD_Main.asp?gicode=A071050
23. CEOSCOREDAILY, 대형증권사 자기자본 현황 그래픽 — <https://m.ceoscoredaily.com/page/view/2025121511334423730>
24. 한국투자금융지주 경영철학 페이지 — <https://www.koreainvestment.com/kr/company/philosophy>
25. 한국투자신탁운용 인재상 페이지 — https://kitrust.com/index/recruit/recruit_needs.jsp
26. 이비엔(EBN)뉴스, 한국투자증권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765>
27. 뉴스투데이, 한국투자증권 채용과정 분 석 —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01019162425>
28. 잡플래닛, 한국투자증권 면접후기 — <https://www.jobplanet.co.kr/companies/2980/interviews/%ED%95%9C%EA%B5%AD%ED%88%AC%EC%9E%90%EC%A6%9D%EA%B6%8C>
29. 잇다, 증권사 업무직 태도가 곧 역량 — https://www.itdaa.net/open_mentorings/3011
30. 한국금융신문, 증권사 현직자 직무역량 인재상 꿀팁 —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08221821025302179ad43907_18